

회계전문인력의 양성과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이 창 우**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은 우리나라가 겪은 IMF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의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및 사회진반에 퍼져 있는 부조리 관행, 분식회계에 대한 관대한 시각, 사회적 통제시스템의 부재 등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건전한 자본구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국제적 정합성 부족, 그리고 외부감사환경의 한계 등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투명한 회계정보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우리나라 회계전문가의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양성과 질적 관리, 전문가 양성의 목표와 적정규모, 우수한 회계전문인력의 양성방향 및 회계전문직의 질적 관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되어 온 회계투명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정리한다.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도래한 외환위기이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분식회계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즉,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많은 경영자와 이를 간과한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다. 분식회계(window dressing 또는 fraudulent reporting)란 경영자, 종업원 또는 제3자 등의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 본 연구는 2001년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전문가들은 1997년 우리나라가 겪은 IMF 외환위기의 한 가지 요인으로서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의 원인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조리 관행, 분식회계에 대한 관대한 시각, 사회적 통제시스템의 부재 등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건전한 자본구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국제적 정합성 부족, 외부감사환경의 한계로 인해 신뢰성 있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공급하지 못한 점 및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의 투명한 회계정보에 대한 인식과 수요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경영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이근수, 2001)와 기업들의 비자금조성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분식회계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감사환경의 개혁(엄기웅, 2001),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대책 및 제도적 보완(신용인, 2001) 및 결산 기집중현상의 완화추진(원정연, 2001) 등의 연구가 회계투명성 확립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회계불투명성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신찬수(2001)는 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불투명성의 제거, ② 과도한 차입위주의 자본구조 배제, ③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에 대한 전달노력, ④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정합성 확보를 통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구축, ⑤ 상장기업이나 등록기업 등 불특정 다수의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는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회계정보의 공시를 강화, 및 ⑥ 투명한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와 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감사품질이란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정보제도에서 있을 수 있는 위반사항을 발견할 확률과 그러한 위반사항을 감사인이 발견하여 보고할 확률을 결합한 결합확률에 대한 감사시장의 평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감사품질 향상을 위하여서는 회계정보의 투명성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는 감사인의 전문능력의 확보, 효율적인 감사노력 배분을 통한 적정한 감사투입시간의 확보 및 감사업무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의 확보 등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혁(2001), 주인기(2001), 손성규(2001) 및 정기영(2001) 등의 연구는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적정감사투입 시간, 독립성의 확보, 감사인의 적격성 강화 및 적정한 감사보수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특히 감사인의 적격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감사대상회사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여야 하며, 소수

의 감사인원투입으로 인한 감사시간의 부족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업무에 있어서 세분화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제도의 확립, 품질관리에 대한 감리제도의 확립 및 계속교육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회계전문가의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양성, 질적 관리, 양성의 목표와 적정규모, 우수한 회계전문인력의 양성 방향 및 회계전문직의 질적 관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또한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학자나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II. 회계전문가 양성의 목표와 적정규모

1. 회계전문가 양성의 목표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가간의 장벽을 없애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이 기업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위 디지털사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구조의 등장은 기업환경을 이전과 달리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로 개편하였으며 이같은 새로운 기업환경하에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회계인력의 양성은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회계전문인의 양성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배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특히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술혁명,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도입 및 회계 전문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회계교육환경도 크게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전춘옥, 2001].

현대의 정보화사회에서 회계전문가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며 날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회계전문가집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능력과 소질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새로이 전문가가 되는 집단의 경우 나날이 변화되는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소질

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능력과 소질의 개발은 지속적인 과정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회계교육 및 훈련의 목적은 능력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능력의 배양은 회계전문가집단의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집단은 입직단계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입직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법제화하기도 한다. 회계법인과 같은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이 입직하는 전문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능력과 소질을 보유하기를 원하며 입직후 회계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직무훈련과정도 이와 같은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회계전문가집단이나 교육담당자들은 이와 같은 동일한 목표하에서 협동할 필요가 있다.

회계전문가집단의 능력배양을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적용하는 기능적(또는 산출위주) 접근방법과, 주로 미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투입위주의 접근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능력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들 요소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방법이며 후자의 경우는 자세한 능력요소에 대한 강조보다는 소질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국제회계사연맹, 2001]. <표 1>은 '소질'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며 <표 2>는 미국회계사회가 제정한 회계전문직에의 진입을 위한 핵심능력체계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접근방법이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한 것이며 어느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중 어느 접근방법을 선택하는가는 각 국가나 사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환경을 고려하여 전문가집단이나 교육담당자들이 적용하여야 할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실무에서 기대되는 업무의 질을 고려한다. 이는 회계전문가들이 실무에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수준에서 수행하는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 실무에서 기대되는 업무의 질이 결정되고 나면 실무에서 회계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질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 (3) 지식, 기술 및 전문가적 가치 등 회계전문가들이 실무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질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표 1〉 소질 또는 장래성(capabilities)의 개념(자료: 국제회계사연맹, 2001)

소질 또는 장래성(capabilities)이란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및 전문가적 가치(professional values)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식

- ① 일반적인 지식 - 예를 들어 역사, 예술, 과학 등
- ② 조직 및 기업에 대한 지식 - 경제학, 경영학 및 계량적 방법론 등
- ③ 정보기술
- ④ 회계학 및 회계관련 지식 - 재무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등

(2) 기술

- ① 분석적 및 구조적 인식능력
- 예를 들어 지식에 대한 평가, 이해, 적용, 분석, 종합 및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는 문제 및 과업의 구체화, 정보의 수집과 정리, 분석과 해석(비판적, 논리적 및 독자적인 사고와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을 포함)을 의미한다.
- ② 기술적인 숙련
-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숫자에 관한 능력, 정보기술에 대한 숙련도 및 회계업무관련 숙련도를 포함한다.
- ③ 개인적인 숙련도 - 예를 들어 솔선수범, 영향력, 자가학습능력
- ④ 대인관계 - 구술 및 문장소통능력, 협상능력, 리더쉽, 팀워크 및 정치적인 통찰력
- ⑤ 조직적인 숙련도 - 전략기획, 과제관리능력, 자아관리능력, 대인 및 자원관리능력

(3) 전문가적 가치

- ① 윤리적인 행동 - 독립성, 객관성, 자신감, 성실성
 - ② 전문가적인 노력 - 정당한 주의, 적시성, 공손함, 존경심, 책임감 및 신뢰성
 - ③ 수월성의 추구 - 지속적인 개선노력 및 평생학습노력
 - ④ 사회적인 책임감 - 공공이익에 대한 이해 및 고려
-

(4) 주어진 환경하에서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을 개발한다. 평가방법에는 시험이나 실무에서의 성과 등을 고려한다. 만약 시험제도가 평가방법의 하나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실무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교과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표 3〉에 제시된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 회계전문직에의 진입을 위한 핵심능력의 체계 - 미국공인회계사회

-
- (1) 기능적인 능력
 - ① 의사결정의 체계화능력(decision modelling)
 - ② 위험분석능력
 - ③ 측정능력
 - ④ 보고능력
 - ⑤ 연구능력
 - ⑥ 기능적인 능력을 제고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술의 보유(leverage technology)

 - (2) 기업관련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안목
 - ① 전략적/비판적인 사고능력
 - ② 산업 및 관련분야에 대한 안목
 - ③ 국제적인 안목
 - ④ 자원관리능력
 - ⑤ 법률 및 제도적인 안목
 - ⑥ 마케팅 및 고객중심사고
 - ⑦ 기업관련능력에 대한 안목제고와 개발을 위한 기술의 보유

 - (3) 개인적인 능력
 - ① 전문가적인 노력
 - ②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능력
 - ③ 인간관계
 - ④ 의사소통능력
 - ⑤ 리더쉽
 - ⑥ 업무관리능력
 - ⑦ 개인적인 능력을 제고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술의 보유
-

2. 회계전문인력의 적정규모

최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수는 현저히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 수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즉, 1997년에 도래한 외환위기 이후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공인회계사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바, 이러한 수요증가의 요인으로는 다음

〈표 3〉 회계전문가집단에 필요한 능력과 소질의 내용(국제회계사연맹, 2001)

-
- (1) 최소한 요구되는 능력의 예
- ① 재무회계 및 재무보고에 대한 지식
 - ② 회계감사 및 확인서비스(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포함)능력
 - ③ 관리회계 및 원가회계에 대한 지식
 - ④ 세무회계지식
 - ⑤ 재무관리지식
 - ⑥ 일반 경영학에 대한 지식
 - ⑦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
- (2) 전문화 능력의 예
- ① 경영분석능력
 - ② 기업조직 및 물류에 대한 지식
 - ③ 전략기획능력
 - ④ 기업재무에 대한 지식
- (3)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능력의 예
- ① 관련법률에 대한 지식
 - ② 경제학에 대한 지식
 - ③ 계량분석론에 대한 이해
-

과 같은 사항들이 언급되고 있다(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2001년 2월).

- ① 민간부문에서의 자산실사 및 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업무범위의 확대
- ②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확대
- ③ 대학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 공공부문의 수요증대
- ④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0년 12월 현재 등록공인회계사 5,309명 중 회계감사인으로서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는 74%인 3,925명에 불과하며, 이중 세무업무 등 종사자를 제외하면 실제 외부감사업무 종사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데, 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표 4〉와 〈표 5〉는 각각 연도별 공인회계사 등록현황과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의 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표 4〉 연도별 공인회계사 등록 현황(매년 3월 31일 현재, 단위: 명, 자료: KICPA)

연도	재경부 최종등록 번호	총등록 회원수	개업			휴업	폐업	등록회원증가수
			감사인	일반	계			
1990	2,652	2,313	1,741	260	2,007	297	9	168
1991	2,879	2,516	1,905	289	2,194	305	17	203
1992	3,059	2,668	2,019	329	2,348	303	17	152
1993	3,261	2,843	2,195	336	2,531	295	17	175
1994	3,520	3,079	2,372	410	2,782	290	7	236
1995	3,774	3,319	2,577	434	3,011	300	8	240
1996	4,070	3,599	2,835	441	3,276	313	10	280
1997	4,378	3,892	2,907	406	3,313	579	-	293
1998	4,677	4,171	3,242	141	3,383	788	-	279
1999	5,099	4,578	3,495	149	3,644	934	-	407
2000	5,534	4,987	3,593	206	3,799	1,188	-	409
2001	5,950	5,354	3,682	237	3,919	1,435	-	367

〈표 5〉 인구 10만명 당 공인회계사 수(1996년 현재; 자료: 이명곤 등(1999))

선진국		개발도상국	
뉴질랜드	550	칠레	87
호주	539	아르헨티나	71
영국	352	말레이시아	48
캐나다	350	남아프리카	35
싱가폴	273	필리핀	31
미국	168	대만	17
프랑스	45	멕시코	15
독일	26	한국	7
일본	10	태국	5
평균	257	평균	35

(주)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주업무가 회계감사와 세무위주로 되어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음.

(주) 한국의 경우 2000년 말 현재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11명에 달하고 있음(금융감독원 자료)

〈표 6〉 연도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85명	282명	351명	453명	511명	505명	555명

등록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표 5〉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본을 제외한 선진외국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모자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이후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이 전문가적인 적격성을 갖춘 공인회계사의 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으로는 감사인간의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과 부족한 감사인의 수로 인하여 서비스비용이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회계전문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상시 외부감사시스템의 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명곤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연간 500명 내외인 현재의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998년 3월 기준으로 활동중인 공인회계사의 수는 약 3,400명 정도이며 이는 인구 10만명 당 8명 정도의 수준으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여도 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회계감사와 회계전문가로서의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의 적정인원은 최소한 1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공인회계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방안으로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지만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전문자격사 시험을 2001년까지 선발인원을 연차별로 대폭 확대하고, 2002년 이후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공인회계시험 합격자 수의 증원 방안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한편 2001년 경제정책조정회의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에 의하면 기업개혁의 일부분으로서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분식회계 근절방안 마련 및 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마련하고(2001년 4월 4일), 회계감리 강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사감

〈표 7〉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 방안(자료: 금융감독원 2001년 2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후
555명	750명	1,000명	1,000명 이상

리 전담부서인 회계감리국을 설치(2001년 4월 27일)하였으며, 공시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2001년 4월). 또한 회계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한 바 있다.

- ① 상장, 등록법인의 거래내역이 발생단계부터 즉시, 빠짐없이,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되도록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을 구축함
- ②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2000년의 555명에서 2001년에는 1,000명, 2002년 이후에는 1,000명 이상을 선발하기로 함
- ③ 향후 분식회계 기업에 대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여신회수, 벌칙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함.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도의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에는 시험과목의 조정 등이 포함된다.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우수한 회계전문인력의 양성과제

전춘옥 교수(2001)에 의하면 회계전문직의 업무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의 회계교육이 대응해야 할 과제로서 회계교육 서비스의 확대, 경쟁의 성격과 영역의 변화,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특수분야에서의 회계교육의 균형유지,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의 증대, 소송문제와 법적 책임문제, 컴퓨터 사용의 확대에 따른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의 필요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21세기 회계목적의 성공적인 달성과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폭넓은 교과과정의 개발과 개선, 보다 효율적인 교육전달과정 및 과목편성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춘옥(2001)은 우리나라의 경우 IMF 구제금융 이후 회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하였지만 아직도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 정상적으로 평가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회계교육은 소수의 새로운 교과목의 개설과 교재개발에 그치고 종래의 강의식 교육과 문제풀이형식의 학습 및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위주의 교과편성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교육은 단편적인 문제풀이식의 강의, 회계기준과 법령의 인지와 이해, 이론중심교육 및 공식적인 회계측정과 공시문제 등 공인회계사 시험대비와 현재의 복잡다기한 경제현상에 부합되지 않은 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와 복합적 회계 환경하에서 비판적 시각을 갖추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회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서는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회계교육은 먼저 회계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계교육을 위하여 대학과 실무계가 합심하여 구체적인 교과과정의 개발과 개선을 통한 새롭고 혁신적인 회계교육의 혁신을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회계전문직의 질적 관리

1. 우리나라의 자격인증제도

1) 공인회계사의 자격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위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공인회계사법 제2조).

2) 공인회계사시험

한편 공인회계사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 진다(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1차시험과목은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 세

법개론 및 영어의 6개 과목으로서 이는 기초소양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제2차시험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및 재무관리의 5개 과목으로서 일반적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그러나 이명곤 등(1999)의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공인회계사시험제도는 충분한 회계적 지식을 갖추고 직업윤리에 충실한 회계전문가를 선발하는데 크게 미흡하며, 특히 기본소양의 검정을 목적으로 하는 1차 시험의 합격률이 매우 낮아 수험자들은 1차시험위주로 수험준비를 하게 되고, 이 결과 회계전문성 검증이라는 시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명곤 등(1999)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을 통하여 회계학, 경영학 및 법학에 관한 최소한의 학점을 시험 전에 취득하게 하고 시험에서는 회계학 위주의 지식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보다 우수한 회계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서는 부분합격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응시료의 현실화 및 시험실시 시기의 적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실무수습과 등록

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0조, 11조).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수습은 다음의 각 기관에서 2년 또는 3년 이상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① 회계법인
- ② 한국공인회계사회
- ③ 금융감독원(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 ④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위와 같은 규정은 회계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전문가 자격시험을 합

격한 후 실무수습과 등록을 하는 내용이지만, 최근 이명곤 등(1999)의 연구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전에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취업 후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면 합격인원의 증가에 따른 수습공인회계사의 취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되고 회계법인이나 일반기업체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인회계사 수습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고 수습기관별 수습기간의 차등화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험합격 전에 공인회계사 수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사전 수습으로 인정하여 실무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공인회계사 선발이 가능하고 사회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2. 입직후의 자기주도적 질관리

감사인은 전문직업인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그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및 연마를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의 정신을 유지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사업무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 제2장은 일반기준으로서 감사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인이 실시하는 감사과정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인 내부의 업무조직이나 공인회계사등의 채용, 훈련 및 승진에 관한 합리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감사업무를 감독과 감사인 조직 자체에 의한 내부심리 등에서 합리적인 질적 관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감사업무를 질적 관리의 문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통한 외부규제와, 감사인 조직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제도를

포함하는 자율적 관리제도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감리제도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공인회계사회와 같이 회계감사와 관련된 기관들이 수행하는 감독 및 통제방법중의 하나로서 감사의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감사보고서 감리와 감사인 내부조직의 정비나 감사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심리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심리제도는 감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감사인 조직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질적 관리방법의 하나이다.

3. 전문직 시장의 개방과 국제경쟁력 및 국제표준

회계전문직중에서 특히 회계감사업을 개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업무의 질적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업과 같은 전문직중에서의 개방문제는 점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민감한 사항이다. 이명곤 교수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업을 개방하는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각각 있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

- ① 외국회계법인으로부터 선진 회계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내기업에게 다양한 국제회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② 회계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외국투자자에게 질 높은 회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임
- ③ 외국회계법인과 경쟁을 통한 국내 회계업계의 품질 향상효과가 있을 것임

한편 회계감사업의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

- ① 국내 회계업계의 외국회계법인 종속화에 따른 국내 산업기술정보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가능성이 증가됨
- ② 국내 대형 상장기업, 합작기업,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회계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외국회계법인의 몫으로 이전되어 국내 회계업계의 존폐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③ 외국회계법인이 외국인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국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회계서비스시장 장악과 국가 신뢰도 하락의 위험이 있음
- ④ 국내에 진출한 외국회계법인이 감사보수의 덤핑 등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전개하는

경우 수입경쟁이 과열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감사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음

IV. 회계투명성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의 검토

1. 회계전문가의 독립성의 제고

회계전문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기영(2001)은 현행 지정감사인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분식회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정감사인제도는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높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에 감리대상으로 추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임으로서 지정감사인이 부실감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처벌 및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금융감독원(2001)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가 일정한 지분이상(지분율 0.01% 및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보유한 기업, 3천만원 이상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기업의 감사수임을 금지(공인회계사법시행령개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기관투자자중 최대지분보유자 1인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역할을 제고(외감법시행령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회계전문가의 윤리의식 제고

회계전문가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영(2001)은 감사기준을 향상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윤리의식을 강화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인회계사 직업 윤리규정과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도록 공인회계사회 회칙의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인회계사들에 의한 윤리규정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감시 및 처벌체제를 확립하여 업무수임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인(2001)의 경우에

도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업윤리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특히 회계법인과 피감사회사의 유착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영진과 감사인간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외형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감사인선임과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공인회계사 직업윤리규정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부실감사 등에 대한 규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또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벌칙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정기영, 200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의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계수준을 강화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실감사를 담당한 감사인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 바 있다. 정기영(2001)에 의하면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강화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집중관리대상 감사인은 감리선정시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 조사 및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의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전문인력을 적정수준(30명~5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향후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는 회사와 감사인간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명하여 책임에 상응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과, 분식회계, 부실감사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보다는 과징금 부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과징금 부과한도는 회계법인 5억원 이하, 공인회계사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4. 감사품질의 제고

정기영(2001)은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책임을 맡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상장기업의 10% 미만을 감리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특별감리가 중심이 되고 있어 감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리팀 인원을 보강하고 산업별 감리팀을 구성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감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계법인간의 상호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상장 및 등록법인을 감사한 회계법인은 상호감리를 의무화하여 감사의 품질을 상당수준 향상시켜야 하며, 또한 조직감리와 감사인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회계법인의 능력과 감사품질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시장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마련과 전문지식을 갖춘 요원의 확보 등이 과제로 남게된다. 신용인(2001)도 역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감사인에 대한 대우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사의 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환경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품질관리감리제도(Peer Review)를 도입하여 공인회계사회 내에 품질관리 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법인이 감사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자율적으로 감리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외감법시행령개정). 또한 조사, 감리 결과, 품질관리감리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된 우수회계법인에게는 감사인 지정시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외감법규정 등 개정).

5. 회계전문가 선발제도의 개선

정기영(2001)은 새로운 역할에 부합되는 자질을 갖춘 감사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과목을 조정하고, 예를 들어 문제은행제도의 도입 등 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선발인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 또한 감사인의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충실한 외부감사기반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명곤 등(1999)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적정인원이 최소한 15,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갑작스런 합격자 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격자 수를 향후 수년간 매년 30% 정도로 증가하고 이후 매년 1,00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시험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회계학이나 경영학 및 법학에 대한 최소이수학점의 수를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예비전문가에 대하여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본 시험에서는 회계학 위주의 지식을 검증하는 제도의 도입과, 부분합격제도의 도입 및 시험실시시기의 조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신용인(2001)도 공인회계사선발인원의 증가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급격한 합격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예를 들어 질적인 저하 또는 실무수습기관의 부족 등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감사환경의 개선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감사환경의 개선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에 대해 신뢰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 감사인이 전문가적인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영(2001)의 정책대안

① 회사의 감사인 변경절차에 대한 통제강화

이는 기업에 의한 감사인의 자의적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이 있는 법인의 감사인 변경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여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을 교체하지 못하게 하고 전기 감사인의 반론권을 보장하여 회사는 감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감사인 변경 사실과 사유 및 전기 감사인의 반론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장회사에 대한 공인회계사 상주제 또는 담당이사제의 도입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기보고서제도 등이 도입되어 상시적인 회계감사 실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상주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상주함에 따라 기업은 회계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사품질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③ 감사인이 기업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신속한 감사를 위해서는 은행연합회의 여신자료를 활용하거나 거래금융기관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기업의 동의를 얻은 감사인은 외부감사시 은행연합회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것이다.

④ 상장법인 등의 외부감사를 담당할 수 있는 감사인의 자격요건 강화

이는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은 공인회계사회의 상장법인 감사부예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장법인 감사부 소속 감사인은 상호감리를 의무화하여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외부평가 및 공시를 강제화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금융감독원(2001)의 정책대안

① 상시감사체제구축

이는 현재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를 기업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회계관련 중요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상시 통보하도록 하고, 중요 회계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강화

이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은 장부의 종류, 작성방법, 마감시기, 수정절차 및 거래의 입력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회사내규를 제정하고, 거래의 발생단계부터 즉시 빠짐없이,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③ 외부감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이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구시 전표와 장부 등을 고의로 위조, 변조, 허위 기재하여 제공한 회사 등에 대하여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

로 제재를 강화하고, 동시에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하는 방안이다.

④ 공인회계사 관련 감독체계의 일원화

이는 공인회계사 시험실시, 징계 및 동 업무와 관련된 소송수행 등 공인회계사 관련 제반 감독업무의 담당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⑤ 시장감시기능의 강화: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기능 강화

이는 2002년 도입예정인 집단소송제의 대상에 분식회계자료를 공시한 기업, 감사인을 포함시켜 투자자가 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 감사인 스스로 분식회계를 자제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⑥ 최근 재무제표 중심의 감리

회계감리는 현재 및 미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최근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최근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노출되지 않은 분식회계 여부를 철저히 감리하여 엄중 조치하는 방안이다.

⑦ 분식혐의 대상기업에 대한 중점관리

이는 종전에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기업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감리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혐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리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외에도 이근수(2001)는 경영자와 감사인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므로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선임을 통하여 전문성과 적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보수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한 감사위험의 축소 및 감사효과의 제고를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용인(2001)도 감사여건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부당한 감사인의 교체를 방지하여야 하고 현재 전기 감사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의견진술권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환경의 조성방안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영(2001)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 금융제재의 강화, 상장 및 등록법인의 경우

공시의무사항에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의 대폭적 추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의 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장요건 등의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가 스스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외부감사의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감사인 관련 감독체계의 일원화, 투자자 피해구제 기능 강화 및 분식혐의 기업에 대한 중점관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2001)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 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장요건 등 각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여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여신회수, 범칙금 리적용 등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유도하고 분식회계 회사가 시장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이는 현재 외감법규정에 이미 반영되어 2000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회계정보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평가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기업여신기준의 한시적 완화(1년간 유예)를 권유하는 등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에는 전기요류수정손실에 따라 기업신용평가등급 하락시 하락 직전 등급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회계감사 강화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협의회가 회생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8. 적정 감사보수체계의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임료는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그동안 많이 발표되었다[주인기(2001), 김호중과 이석영(1996), 주인기와 최관(1997), 주인기 등(1999)].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임료는 1997년과 1998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25%, 일본의 20%, 독일의 25% 정도의 수준이다. 이들 연구는 모두 감사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문감사

인에게 적정한 감사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감사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주인기(200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실감사문제는 감리제도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낮은 감사수임료와 자산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었던 과거 감사수임료 결정체계에도 기인하는 것이며, 감사수임료의 결정체계는 내부통제제도의 정비여하에 따라 차등화된 감사수임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표준감사시간 체계를 개발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 결산기 집중현상 완화

원정연(2001)은 우리나라 기업의 결산기가 12월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산기를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① 결산기를 분산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일정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상장기업의 주주총회를 분산함으로써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 및 시민단체의 주주총회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주주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 ③ 배당재원, 납세재원 등 기업의 자금수요를 연중으로 분산하여 기업자금 수요의 집중으로 인한 자금경색 등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세수도 분산되어 예산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원정연(2001)이 제시하는 결산기 집중현상의 완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12월 이외의 결산시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정부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세법을 비롯한 경제법의 시행시기에 있어서의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의 업종에 따른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하여 동종업종을 특정월로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업종별 비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정부의 회계연도를 3월이나 6월로 변경하여 기업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유도한다.
- ④ 기업그룹의 특성에 따라 계열기업 전체를 특정월로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업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결산기 변경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 감사보수의 할인, 우대금리의 적용, 기업평가에서의 가점, 각종 협의회비 등 준조세의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

V. 맺음말

회계감사, 즉 재무제표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으며, 감사인의 의견표명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감사인의 의견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는 있어도 경제실체인 회사의 장래 존속능력 또는 회사 업무집행에 대한 경영자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감사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이창우 2001]. 그러나 이러한 회계감사의 한계가 회계전문인력의 업무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되어야 하며 이들 회계전문인력이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회계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적격성 및 우수한 감사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되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인의 적격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감사대상 회사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여야 하며,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소수의 감사인원투입으로 인한 감사시간의 부족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업무에 있어서 세분화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제도의 확립, 품질관리에 대한 감리제도의 확립 및 계속교육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2001. 4). 분식회계근절방안.

- 김건식·윤진수 (1998).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한국공인회계사회.
- 김혁 (2001. 9). 자본시장에서의 감사품질에 대한 수요촉진.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 김호중·이석영 (1996. 12). 현행감사보수체계의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215-237.
- 손성규 (2001. 9).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공인회계사.
- 신용인 (2001. 9).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대책 및 제도적 보완.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 신찬수 (2001. 9). 회계투명성과 회계감사.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 엄기웅 (2001. 9). 기업비자금조성 환경개혁.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 원정연 (2001. 9). 결산기 집중현상의 완화추진 — 선진외국의 사례 비교연구.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근수 (2001. 9). 회계투명성 확립을 위한 기업경영자의 책임.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명곤·장휘용·정문중·배길수·조성표·김종대 (1999. 3). 회계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금융감독원.
- 이근수 (2001. 9). 회계투명성 확립을 위한 기업경영자의 책임.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창우 (2001. 3). 회계감사. 경문사.
- 전춘옥 (2001. 5). 회계전문인 양성을 위한 회계교육 — 미국에서의 회계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 정기영 (2001. 9). 감사인의 적격성 강화 및 품질 제고.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 주인기·최관 (1997. 12). 외부감사보수체계 개선방안.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보수체계특별위원회.
- 주인기·최관·정문중·김정국 (1999). 적정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한국증권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주인기 (2001. 9). 감사인의 적정감사시간 투입으로 감사인의 적정보수 확보.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IFAC (2001). Competence-Based Approaches to the Preparation and Work of Professional Accountants. *Exposure Draft Discussion Paper*, May.

A Note on the Enhance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and Quality of the Professional Accountants in Korea

Changwoo Lee*

ABSTRACT

Fraudulent Reporting is one of the factors that caused the IMF crisis in Korea in 1997. The fraudulent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systems, the generous acceptance of fraudulent accounting, the lack of social control system, the weak capital structure and the distorted governance system of most Korean companies, and the inconsistent accounting regulations are regarded as major factors that have caused the difficulty in Korea.

This study is a literature survey regarding the issues of enhancing quality control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and providing good-quality accounting services in Korean capital market. The main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the current status of professional accountants in Korea, educating professional accountants and quality control, and the need and the appropriate number of professional accountants in Korea.

Key Words: Fraudulent Accounting, Accounting Regulations, Professional Accountants, Quality Control, Accounting Transparency

*Associate Professor of Accou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